

2024. 5. 2.(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5월 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과장	이창현	2133-2805
	관광협력팀장	함혜정	2133-2814
사진 없음 <input type="checkbox"/> 사진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쪽수: 5쪽	관련 누리집 (메뉴)	@2024seoulwelcomeweek(인스타그램)	

"따스한 봄날 서울에서 만나요"...외국인 관광객 '서울환대주간(5.3.~5.10.)'

- 황금연휴 맞아 5.3(금)~5.10(금) 8일간, 외국인 관광객 '2024 서울환대주간' 봄시즌 운영
- 주요 관광지 명동에 환대센터 조성...서울여행상담소,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 환대 이벤트 풍성
- 외식업 종합 플랫폼과 협력해 외국인 대상 미식관광 편의 개선·환대주간 기념 특별 혜택 제공
- 서울시, 환대주간 통해 '서울관광 3·3·7·7' 박차...더 머무르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것

- 서울시와 서울관광협회가 3일(금)부터 10일(금)까지 8일간을 외국인 관광객 대상 '2024 서울환대주간(Seoul Welcome Week 2024)'으로 정하고 봄맞이 외국 손님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 서울환대주간 주제는 '미소를 가져가고 추억을 남겨요(Take a smile, leave a memory)'로 주요 관광지인 홍대, 강남 등 옥외 전광판에 환영 인사가 함께 표출되어 도심 곳곳에 환대 분위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 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서울 여행상담소 ▲미식관광 편의 정보 알림 ▲K-공예 체험 ▲럭키드로우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구성된 환대 프로그램을 제공해 서울로의 재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 특히 서울 대표 봄축제 ‘서울페스타 2024(5.1.~5.6.)’에 외국 관광객이 다수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환대 분위기를 조성해 서울 관광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 ‘서울페스타 2024’ 개최 기간은 중국(노동절, 5.1.~5.5.)과 일본(골든 위크, 4.27.~5.6.) 등 동북아시아 주요 연휴 기간으로 많은 외래 관광객이 서울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에서는 환대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도록 환대센터를 설치해 ▲여행상담소 ▲K-공예 체험 ▲웰컴드링크(환영음료) ▲럭키드로우 이벤트를 통한 서울 관광 특별 기념품 제공 등의 다양한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 시는 외국 관광객이 환대센터를 통해 서울 여행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관광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영어는 물론 일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운영요원을 상시 배치해 운영한다.
 - 다국적 관광객을 고려한 AI 통역기도 준비되어 있어 아랍권, 유럽권, 동남아권 등에서 온 관광객도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명동 환대센터 운영개요

- 운영장소 : 명동 밀리오레 앞(명동역 6번 출구)
- 운영시간 : 5.3.(금)~5.10.(금) / 11:00~18:00

- 이 외에도 한국 전통차를 캔으로 제작한 ‘웰컴드링크’를 제공하며, 서울행 탑승권과 전통 장신구(태슬)을 조합한 나만의 키링 만들기 ‘K-공예 체험’, 친환경 어메니티 세트, 패션감이 충만한 보냉백 등의 기념품이 준비된 ‘럭키드로우 이벤트’, ‘관객체험형 마술공연(5.5)’, ‘1분 캐리커처 이벤트(5.5)’ 등 풍성한 즐길 거리를 통해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흥미와 참여를 높일 예정이다.

□ 또한 서울시는 이번 환대주간에서 외식업 종합 플랫폼 ‘캐치테이블’과 협력해 K-미식에 관심이 많은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음식점 예약 및 원격대기 서비스 ▲특별 쿠폰 제공 등의 혜택을 마련했다.

○ 환대센터에서는 명동 지역 주요 명소(핫플레이스)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 휴대전화 번호가 없는 외국인 관광객도 맛집을 즐길 수 있도록 이메일을 활용한 식당 예약·대기 방법을 안내한다.

○ 환대주간 기념 특별 쿠폰은 캐치테이블을 통해 주요 맛집을 대상으로 발행되며, 외국인 관광객도 현지인처럼 서울의 맛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미식 관광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 한편 시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지난해 가을시즌(9.28~10.6) 서울 환대주간을 재개해 외국인 관광객 서울 방문 유치에 힘써왔으며, 올해 서울환대주간 운영을 통해 ‘서울관광 3·3·7·7’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 지난해 명동 환대센터에는 하루 평균 3,700여 명, 총 3만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했다. 다양한 체험과 할인 이벤트를 경험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설문조사 결과 98%가 ‘서울 관광에 만족한다’라고 응답했다.

○ ‘서울관광 3·3·7·7’은 ’26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1인당 지출액 300만 원 ▲체류 기간 7일 ▲재방문을 70%를 달성하겠다는 서울관광 미래비전을 뜻한다.

□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환대주간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뜻깊은 추억을 얻어가길 바란다”라며, “미소와 친절의 환대문화를 선보여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마음속에 ‘더 오래 머무르고 다시 찾고 싶은 매력도시 서울’이 자리 잡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
Seoul
Welcome
Week

2024. **5. 3.** FRI – **5. 10.** FRI
11:00 – 18:00 in MYEONG-DONG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서울특별시관광협회
Seoul Tourism Association



(사진 1) 2023년 명동환대센터 투호 체험



(사진 2) 2023년 명동환대센터 경품 이벤트



(사진 3) 2023년 명동환대센터 참여 이벤트



(사진 4) 외국 관광객과 함께하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